

/·/音의 消失期에 대하여

李 宇 榮*

I. 序 言

/·/音에 관한 研究는 小倉進平·河野六郎·崔鉉培·李崇寧·許雄·李基文 諸氏들에 의하여 비교적 상세히 進行되어 왔다. 주로 濟州方言을 중심으로 시도한 일련의 研究들은 音價, 音의 性格, 消失期 등에 대하여 언급한 論著들이다.

消失文字 중 특히 /·/音에 관하여는 몇몇 碩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神聖不可侵의 분야처럼 여겨져 새로운 학도들이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한 領域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先行研究物들이 완벽하고 學界에 認定을 받고 있다는 데 더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筆者도 그런 점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단지, 이 試論에서는 文獻資料와 經驗證據를 다른 각도에서 제시함으로써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통해 기왕의 研究物들에 대한 補完 내지는 부분적 修正을 가해 보려는 것이다.

筆者는 1981年 濟州大學에 근무하게 된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 濟州方言에서의 /·/音 實現에 관심을 기울여 오던 중, 15·16C 文獻에서의 /·/音 表記와 관련, 흥미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왕에 발표한 이 방면의 筆者의 論文¹⁾은 방대한 資料를 수합한 노력에 비하여 그 結果의 推出이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시

* 韓國體育大學 教授

1) 拙稿; "/·/音의 混錯表記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1981.

그 資料들을 토대로 보다 具體的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작업의 필요성에 따라 本稿에서는 消失期에 관한 研究에 보다 관심하게 된 것이다.

/o/音의 消失期을 바르게 밝히는 일은 中世國語의 母音體系를 바로잡고 그 變化推移를 이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動搖를 보이고 있는 /-/音의 變化推移를 예측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音은 /o/音과 유사한 점이 많다²⁾는 데서 두 音의 變化는 상호 對比的 의미 이상의 것일 수도 있다.

/o/音 消失期에 대하여(第2音節 以下에서) 17C로 본 것³⁾은 國內의 학자들의 共通된 見解였고 李基文 教授가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에서 16C 消失 可能性을 暗示한 발전적 見解⁴⁾가 있어 왔다. 그러나, 具體的인 시기를 밝히는 데는 주저했고 또 이분들이 제시한 資料들이 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濟州方言의 發展推移를 통해 어렵듯이 類推한 것들이었다.

II. 15C 文獻語에서의 混淆

15C 文獻에 나타나는 /o/音의 表記用例 중 /ㅏ/音이나 /ㅡ/音과의 混同으로 두 가지가 同一單語에 함께 나타나는 實例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둘째音節 以下에서)

아리/아래

○아릿 殃報를 곧 써서 安樂ᄃ야(月釋 21:97), 아리 묻조은티(楞解 1:30), 아

2) 拙稿; 前掲書

3) 李崇寧; “/o/音의 消失期 推定에 대하여”, 學術院論文集 16, 1977.

4)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重要한 사실은 濟州方言이 第二音節 以下에서만 母音을 消失하고 있는 事實이다. 이것은 그 方言이 위에서 우리가 말한 바 第一段階의 消失을 완수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그 方言이 第一音節에서 例外 없이 그 母音을 維持하고 있다는 事實은 그 方言이 아직 第二段階의 消失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端的으로 濟州方言의 現代로, 이 現象에서는, 바로 서울方言의 16世紀에 該當되는 것이다.’라고 p. 90-91 에서 말하고, 한편, 88p에서 <여기서 거금 結論하면 ㅁ音 消失의 第一段階는 16世紀 後半에는 完成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덕向來(圓覺上一之=15)

- ◎아랫 恩惠를 니저 버리샤(釋譜 6:4), 아래 네 어미 나를 여회여(月釋 8:86), 아래 잇디 아니홀 이룰 得과라 하더니(楞解 1:29)

덕/덕

- ◎도즈기 겨실 덜 무리(龍歌 68章)
- ◎먼뫼胡敎(月釋 2:69)

도록/도록

- ◎엇테 이제 도록(月釋 21:6), 혼 劫이 남도록 넘어도(釋譜 9:10)
- ◎더리도록 아니 앓기놋다(釋譜 6:26), 혼뫼대 제도록 길다가(月釋 8:9)

선비/선비

- ◎선비를 아른실씨(龍歌 80章), 늘근 선비를 보시고(龍歌 82章), 선비그레(月釋 2:48)
- ◎世上엿 선비는 해 빼뫼느니(初杜解), 선비의유(訓蒙上 34)

가마기/가그기

- ◎가마기 주저(救急方上 24)
- ◎가그기 브레 뻬면(救急簡易方 1:77)

기름/기름

- ◎모매 째기름 뫼르며(釋譜 6:10)
- ◎骨髓는 셋소개 잇는 기르미라(月釋 1:13)

조수로이/조소로이

- ◎겨스레 鋪니브레 조소로물 조수로이 너기노라(初杜解 23:11)
- ◎큰 지비 하다가 기울면 梁棟 뫼곶오져 조소로이 너기리니(初杜解 18:13)

거시닐/거시닐

- ◎普光佛이 세계에 나거시닐(月釋 1:8), 王이 바드러 갖가비 하거시닐(月釋 2:5), 普光佛 減度하거시닐(月釋 1:18), 그저기 夫人이 나모 아래 잇거시닐(月釋 2:42)
- ◎太子△位 다투거시닐(龍歌 101章), 世子△位 뷘어시닐(龍歌 101章)

수스다/수스다

- ◎近間에 드로니 詔書] 느려 都邑에서 수스느니(初杜解 17:29)
- ◎활깃는 버리 수스놋다(初杜解 21:6), 天地에 사르미 나날 머구리 구스돏 하더라(初杜解 24:41), 수스워려 도트는 서해(初杜解 20:8), 東方이 슬허 수스

워리느니(初杜解 22:48)

더으다/더으다

- ◎내이 여히는 興이 굵여 나리 더으니다. (初杜解 8:46)
- ◎원너거 훈덤을 더으면(訓正註解), 益은 더을씨라(月釋序 11), 兪謀 | 날로 더을씨(龍歌 12章)

니르다/니르다

- ◎後聖이 니르시니(龍歌 5章), 謂는 니를씨라(月釋序 10), 說은 니를씨라(月釋 1:15), 브터 니르샤디(月釋 1:17), 弟子드러 겨샤 大乘小乘法을 니르샤(月釋 8:90), 靈利호 사롬은 쏘 니르라(蒙法 56)
- ◎聖經을 니르시니(龍歌 62章), 言은 니를씨라(訓正註解), 그르 닐어 彌勒이다 하시니(月釋 51), 禪定神通을 니르디 아니하시니(蒙法 37)

이르다/이르다(成)

- ◎須達이 손보터 내 어루 이르수보리다(釋譜 6:22). 弟子 하느홀 주어시든 말 드리 이르수바지이다(釋譜 6:22), 舍衛國에 도라가 精舍이르수보리니(釋譜 6:22).
- ◎이 사해 精舍 이르수볼제도 이 개야미 이레세 살며(釋譜 3:37), 須達이 精舍 이르습고 窟 밍글오(釋帝 6:38), 明帝 佛法을 더욱 恭敬하시 城밧기 닐굽 덜 일어 중살이시고(月釋 2:77)

설피다/설피다

- ◎춘 곳부리와 설편 가지 半만 치우물 이거디 몰하얏다(初杜解 8:42)
- ◎松竹이 가지 설피며(永嘉下 113).

에받브다·에왈브다

- ◎쉽고 에받븐 뜨디여(月印上)
- ◎손소 죽디 못하야 쉽고 에왈븐 뜨들 머거(釋譜 6:5).

: 이밖에도 ‘ㅁㅁ리/ㅁ그리’, ‘그디/그되’, ‘기르마/기르마’, ‘나ㅁ내/나그내’, ‘노르/노로’, ‘딜시룬/딜시르’, ‘받즈볼/받즈울’, ‘슌ㅁ락/슌가락’, ‘사늘ㅎ다/사늘ㅎ다’ 등 약간의 연대차는 있으나 묶어서 생각할 만한, 관심 있는 말들을 찾아 낼 수 있다.

이상에서 대비해 본 바와 같이 그 수효는 기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나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후일로 미루기로 하고) 語彙의 語形 頻度가 곧 그 시대의 言語나 音韻體系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破格은 中대한 언어사실을 말하여 주는 實例들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15C 文獻 중에도 同一文獻인 龍歌, 月釋, 蒙法에 각각 ‘니르다/니르다’가 나타나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l’ 中聲母音下에서 陽性·陰聲이 다 나타날 수 있으나 同一文獻에 一貫성이 없는 것은 /·/音의 動謠를 말해 주는 좋은 例가 될 것이다. ‘니르다/니르다’의 兩形의 共存을 認定하기에는 하필 ‘르/르’ 語幹末音을 가진 用音이 많은데 ‘이르다/이르다’, ‘니르다/니르다’만 그리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도 밝혀지겠지만 ‘르/르’의 混同이 다른 어느 경우보다 16C 初에서 중기 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발브다·애왈브다’는 중요한 資料이다. 이와 같은 말들은 한결같이

궤뵤다(圓覺下 1之 1:62)

골꼭다(月釋 21:55)

골프다(重內訓 2:80)

고돌꼭다(杜解 7:18)

깃브다(釋譜 9:6)

날뵤다(釋譜下 9:5)

낫브다(老解下 26)

뉘웃브다(釋譜 6:9)

뉘웃브다(二倫 14)

밀브다(類合下 25)

밧뵤다(釋譯小學 10:23)

뵤왓뵤다(金三 2:37)

슬프다(初杜解 25:53)

어치얼브다(釋譜 19:7)

아철브다(永嘉下 136)

아철브다(重內訓 1:13)

알꼭다(月釋 2:22之 1)

알프다(杜解上 40)

아꼭다(痘瘡集要上 61)

애긋브다(杜解 5:27)

어엿브다(古時調)

에엿브다(訓蒙下 33)

에엇부다(古時調)

어얼브다(倭解上 21)

잇브다(三綱)

일브다(倭解上 21)

저프다(月釋 6)⁵⁾

로 15C 文獻에서는 母音調和의 原則에 따라 表記된 것이 사실인데 이 ‘에 받브다·에왈브다’ 만은 그 原則에서 벗어난 表記이다. 이 形容詞는 ‘에바티다·에와티다’ 動詞 語幹에 ‘브다’ 接尾辭가 붙어서 이루어진 語形인데 表記者들은 語源을 잃어버린 狀態에서 ‘브다’를 ‘브다’로 混錯한 것이라 보인다. 이 무의식 중의 표기야말로 /·/音과 /ㅡ/音의 混同에서 온 것으로看過할 수 없는 資料이다.

◎에와티다: 概는 에와틸씨라(月釋序 15), 知慧人 비치 셸리 도모물 기리 에와티노라(永嘉序 14), 싸호던 싸헛 에와티는 녀시 밤마다 우느니(杜解 4:33)

◎에와툼: 이 내키 에와툼물 마장하논 고디라.

◎에와툼: 大師 | 학마 가지니 기리 에와툼미 이에 잇도다.

◎에와티하다: 霜露에 에와티 더욱 슬허하노라(月釋序 16)

등의 例에서 動詞 語根 ‘에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위의 例示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리/아래’, ‘도록/도룩’ ‘디/딤’ ‘가마기/가그기’, ‘즈스로이/조소로이’ 등이 양형이 존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며, 설령 兩形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ㅏ→ㅑ’, ‘ㅓ→ㅕ’의 변천 推移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은 /·/音의 動語에서 그 실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Ⅲ. 15·16C 文獻에서의 混錯

混錯이란, 한 音韻이 다른 하나의 音韻으로 변이되어 가는 過程에서 파악되는 정상적인 表記로서의 音韻表記가 아니라 表記者의 錯覺이나 認識의 부

5) 南廣祐; 『國語學論文集』, 中大出版局, 1965, p. 102-103.

죽에서 오는 表記의 혼동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음이 /·/음으로 변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同一時期의 文獻에서의 混淆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앞의 문헌에서보다 뒤의 문헌에서 /·/로 나타나는 特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또 /·/음이 쓰일 수 없는 곳까지 /·/음이 나타나는 例들은 이미 15C에서부터 16C 初에 /·/음에 대한 인식을, 둘째 音節 以下에서는 상실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단지 그 區別의 可能性은 筆者가 밝힌 것⁶⁾처럼 첫 音節에서의 /·/음이 살아 있으므로 하여 그 類推表記가 可能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현재 濟州 토박이들 중에는 무리 없이 話者의 얘기만 듣고, 15C에 第二音節에 쓰였던 /·/음을 再構해 낸다⁷⁾는 사실이다.

이러한 混錯語의 경우는 대단히 많으나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ㅁㄹㄷㄹㅁ다/ㅁㄹㄷㄹㅁ다

◎關은 門의 ㅁㄹㄷㄹㅁ는 남기오(法章 4:130), 扇모 허리에 ㅁㄹㄷㄹㅁ 남기라(小解 3:12).

◎너를 依藉하야 저근 올헤 ㅁㄹㄷㄹㅁ고(初杜解 25:2)

거늘/거늘

◎너ㄹㄱ거늘 듣노니(杜解 2:2), 達音이 잇거늘(龍解 3:15)

◎바닥래 ㅁ 업거늘(龍歌 20章), 雪山此에 가니 싸히 흰하고 도흔 고지 하거늘(月解 2:7)

기뜬다/기뜬다

◎子遣는 ㅁㅁ 몀가지니도 기뜬니 比는 音軍中 舉無遺策也 1라(杜解 22:22)

◎목슴 기뜬리잇가(龍歌 51章), 遣는 기뜬세라(月釋序 19), 오히려 시러곰 기튼 보믈 보리로다(杜解 21:3)

너느/너느

◎너느 일은 ㅁ 쉽거니와(重內訓 12:13)

◎너느 龍이 다 臣下라(月釋 1:24), 너느 나랏王이 혼날 다 아들 나하며(月釋 2:44)

6) 拙稿, 前揭書.

7)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에서 濟州民謠를 /·/음을 살려 무리없이 表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에서는 성경을 /·/음을 살린 表記로 어느 목사에 의해서 간행된 일이 있다.

드릭/드르

- ◎드릭野(石千 27)
- ◎드르헤 龍이 싸호아(龍歌 69章)

밧ㅁ목/밧가락

- ◎이 닷 밧가락 가진 활업슨 룡을 슈질호니논(初朴通事上 14)
- ◎밧가락ㅁ로 싸를 누르시니(釋譜 6:39)

브르다/브르다

- ◎이계 親生호 아히 小名을 神奴 1라 브르코(朴解中 9)
- ◎놀애를 브르리 하더(龍歌 13章), 놀애 브르며 춤즈며 룡담호야(月釋 1:44)

서릭/서르

- ◎妻子들히 드라가 서릭 보내느니(重杜解上 1)
- ◎문중와로 서르 스뎃디 어니호씨(訓正註解), 相은 서로 호는 쓰디라(訓正註解)

시름/시름

- ◎뎡 害홀가 시름호는 무리(重杜解 25:2)
- ◎시름 ㅁ슴 업스샤더(龍歌 102章)

언지/언제

- ◎언지 幾時(譯語上 15), 언지 온다. 多咱來(譯語補 58)
- ◎언제 새어든 부터를 가 보수보려노호더니(釋譜 6:19)

이슬/이슬

- ◎든 이슬이 히바다 무덤 알피 나리고(五倫 1:52), 인성이 아춤 이슬 ㅁ트니(五倫 2:12)
- ◎露는 이스리라(月釋序 15), 이슬露(訓蒙上 2)

후놀다/후늘다

- ◎고기 쏘리 후늘는 양지라(全三 4:12)
- ◎錫杖을 후느더시니(月釋 8:77), 錫杖을 후는데(月釋 8:90)

이밖에도 ‘기르다/기르다’, ‘도죽/도죽’ 등과 같은 말들도 많이 보인다. 文獻語와 實際語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常識으로 되어 있다. 15C 末 文獻에 그렇게도 정확하게 기록된 /·/음이 16C 初期 文獻에 것처럼 문란을 보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더구나 /·/음이 쓰일 수 없는 곳에까지 /·/음의 表記를 보이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年代를 무시하고 /·/와 /-/가

역순으로 나타나는 것[〈드르헤 龍이 싸호아(龍歌 69)〉와 〈드르야野(千石 17)〉]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음의 性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음의 消失期를 推定할 수 있는 結定的 단서가 될 것이다.

/·/음은 이미 15C 以前부터 動搖가 있어 오다 15C에는 정작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5C 文獻에 그 表記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訓練된 학자들에 의해 可能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前述한 바와 같이 몇몇 안되는 破格의 例였지만 文獻語 속에서의 이와 같은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적어도 16C 初에는 둘째 音節 以下에서는 그 音價가 사실상 消失, 中和되었음을 暗示해 주는 資料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들의 重大 관심사가 되었던 確立성 있는 表記를 實際語 그대로 믿으려는 생각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이 수정되어야 할 근거는 初刊杜解와 重刊杜解의 대비를 통해서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初刊朴通東나 翻譯小學 등도 重大한 사실을 示唆해 주고 있는 문헌들이나 詳論은 後日로 미루려 한다.

현재 濟州方言에서 첫 音節을 제외한 둘째 音節 以下에서 사실상 /·/음이 消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識見있는 토박이들은 /·/음을 再構해 내는 데 그리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것⁸⁾은 재미있는 일이다. 요즘도 濟州出身 학자나 뜻있는 분들에 의하여 많은 책들이 /·/음을 살린 채로 發刊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示唆해 주는 바가 크다. 濟州方言의 發達推移로 보아 16·7C 李朝語와 오늘날의 상태가 유사한 것이라 볼 때, 濟州方言에 關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文獻語의 研究와 더불어 의미있는 作業으로 여겨진다.

IV. 結 語

1) /·/음은 14C부터 動搖가 시작되어 15C 와서 크게 흔들리고 16C 初에

8) 玄容駿·金榮教; 前掲書.

는 이미 中和·消失되었다.

2) ‘더으다/더으다’, ‘니르다/니르다’ 등의 語彙가 15C 文獻에 同時에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엄정한 表記原則으로 보아 사실상 /·/音의 中和 내지는 消失을 보여 주는 산 자료가 될 것이다.

3) ‘기트다/기트다’, ‘거늘/거늘’, ‘녀느/녀느’, ‘시름/시름’ ‘언지/언제’ 등 많은 語彙들이, 時間的으로 뒤의 文獻에서 /·/表記가 발견됨은 前期 文獻의 表記와 대비해 볼 때 混錯의 意味 이상의 意味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語頭音節에서의 /·/音 消失期는 後日 詳論을 약속하고 本稿에서 취급을 留保한다.

5) 濟州 토박이들이 第二音節 以下에서 이미 消失된 /·/音을 별로 어려움 없이 再構할 수 있다는 것은 15·16C /·/音 消失 以後에도 비교적 /·/音에 관한 精確한 表記가 가능할 수 있었음을 示唆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6) 本稿는 南廣祐教授의 ‘古語辭典’, 李崇寧·최현배·李基文 教授의 先行研究物과 濟州大學의 玄容駿·金榮教 教授의 도움말에 힘입은 바 크다.

參 考 文 獻

金錫得; “消失文字(Graphemes)攷”, 人文科學 13, 1965.

金永松; “舌縮의 本質”, 金鍾雨華甲紀念論, 1979.

金亨奎; 「國語史研究」, 一潮閣, 1982.

南廣祐; 「補訂古語辭典」, 一潮閣, 1977.

——; 「國語學論文集」, 中央大學校 出版局, 1962.

朴炳采; 「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 高大 出版部, 1973.

徐廷範; 「現實音의 國語史의 研究」, 汎友社, 1975.

成元慶; “漢字音으로 본 音價의 再攷”, 國文學論集, 1972.

李基文;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塔出版社, 1978.

——; 「國語音韻史研究」, 國語學會, 塔出版社, 1980.

李崇寧; 「國語音韻論研究 第一集」 “「·」音攷”, 乙酉文化社 1955.

——; “/·/音의 消失期推定에 대하여”, 學術院論文集 16, 1977.

李崇寧；「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塔出版社，1978.

崔鉉培；“字의 소리값 詳考”，東方學志 4, 1959.

許 雄；「國語音韻學」，正音社，1979.

玄平孝；“濟州島方言 “·”音 小考”，梁柱東 博士 華紀論文論，東國大學校，1963.